

기독교시민운동중앙협의회, 제7회 정기총회

신임 대표회장 원종문 목사, “성경 기반한 기독교적 시민운동 필요”

회화와 평화를 통한 한반도 통일시대의 한국교회를 준비하는 기독교시민운동중앙협의회가 지난 11월 3일(목) 서울 연지동 여전도회관에서 제7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에 원종문 목사를 추대했다.



신임 대표회장에 선임된 원종문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금의 시대는 시민운동이 매우 절실히 필요한 시기로 특히 무엇보다 성경에 기반한 기독교적인 시민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부족한 사명을 추대해 주셔서 아까가 매우 무겁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예배는 증경회장 정재규 목사의 사회로 예정합동 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필드의 신앙’이란 주제로 설교를 전했다.

이어 특별기도 시간에는 김동권 목사(예정합동 증경총회장)가 ‘대통령과 국가안정

을 위하여’, 최원권 목사(그리스도의교회협 증경총회장)가 ‘북핵 폐기와 남북통일을 위하여’, 최병두 목사(예정합동 증경총회장)가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를 주제로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조일래 목사(한교연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통일연합종교포럼 총재), 이혜운 의

원(새누리당 조찬기도회장)이 축사를 김영진 장로(국가조찬기도회 초대회장), 박위근 목사(세기총 대표회장)가 각각 격려사를 전했다.

특히 김요셉 목사는 축사를 통해 “신임 대표회장인 원종문 목사가 섬김의 리더십을 두루 갖춘 참된 지도자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단체의 변화와 발전이 매우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혜운 의원은 최근 최순실 사태로 인해 시국이 매우 불안정한 점을 언급하며 “기독교인들의 좀 더 깊은 반성과 기도가 요구될 때”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의 사태를 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음을 반성하게 된다”면서 “이 모든게 권력, 정치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외치지 못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죄”라고 고백했다.

한국교회 원로목회자, 구국기도회 개최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이사장 임원순 목사)은 지난 11월 7일(월) 서울시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월 15일 오전 10시 반,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교회 원로목회자 구국기도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단이 주최한다. 최근 일련의 시국 혼란과 관련, 대부분의 기독교단체와 교회에서는 이를 한국교회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에 동참하며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로목회자재단 역시 나라의 위기를 통감하고 국가의 원로로서 구국기도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기도회는 ‘주여 이 나라와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 재단이 후원하고 한국기독교행신도총연합회가 주관하며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 임원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나라의 죄는 회개하지 않은 우리들의 죄라며 “우리가 진정 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한다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던 뜨거운 기도가 살아야 한다”고 고백하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며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15일(화) 구국기도회는 원로목회자를 대표해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 증경회장 최복규 목사가 나라를 위하여 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고, 한국교회연합 명예회장 김동권 목사가 대표기도, 한영목회자를 대표해 한기총명예회장 이태희 목사가 위정자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또 한국범죄예방국민운동본부 한은수 감독과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상임이사 김경태 장로가 대표기도를 평신도를 대표해 한국기독교행신도총연합회 총재 정근모 장로가 국민을 위하여 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대기총 부흥사협 대표회장 취임예배

한정동 목사, “부여된 사명 기도로 감당하겠다”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이사장 이선 목사, 총재 조광동 목사)는 지난 11월 3일(목) 오전 11시 한국100주년기념관에서 부흥사협의 대표회장 취임예배 및 11월 기도회를 갖고 부여된 사명을 기도로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선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름을 보고 있다. 안으로 들여다 보면 이는 영적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이름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 뿐이기에 우리는 대표회장을 중심으로 부흥을 일으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장의 인사, 상임회장 최복수 목사(예정아카데미 총회장)의 한국기도에 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상임회장 방영영 목사가, ‘한국교회부흥과 세계선교를 위하여’ 상임회장 송진태 목사가, ‘각 종회와 단체를 위하여’ 상임회장 정형기 목사가 특별기도를 인도한 후 상임회장 이용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예배는 상임회장 김무기 목사 사회로 상임회장 이우자 목사 대신 보수총회 총회장의 대표기도, 총재 조광동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아진 취임예배는 부흥사 대표회장 한철동 목사에 대한 취임과 증경, 이에 대한 대표

조광동 목사는 요 13:1 말씀을 본문으로 한 ‘천년기는 대기총’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한국교계를 보면 있다가 없어지는 단체가 많다. 그러나 대기총은 이러한 전철을 밟는 단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인간적인 사랑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가는 단체가 되면 천년기는 대기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동 목사는 “부여된 사명 기도로 감당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11월 3일(목) 오전 11시 한국100주년기념관에서 부흥사협의 대표회장 취임예배 및 11월 기도회를 갖고 부여된 사명을 기도로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성연, 사회복지 컨퍼런스 개최키로

오는 12월 12일(월) 성결대에서

한성연 총회는 11월 4일(금) 오전 팔레스 호텔에서 총무대회의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한성연 목회자 체육대회 결과에 대한 보고가 먼저 있었으며 이어 한성연 교단명칭, 신년하례식, 성결인의 대회, 비전선언문, 사회복지 비전컨퍼런스 등 다섯개의 안건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성연 교단 명칭에 대해 기존 ‘한국성결교회 연합회(한성연)’를 앞으로 ‘한국성결교회(예성, 기성, 나성) OOOO’로 하기로 하고 최종 사용 기준은 각 교단 총회에 서 인준을 받아 사용하기로 했다.

둘째, 2017년 한성연 신년하례식은 내년 1월 24일(화) 오전 11시로 하며, 장소는 추후에 공지하기로 했다. 셋째, 성결인의 대회는 2017년 3월 5일 오후 4시에 성결대학교에서 하기로 했으며, 모든 진행은 한성연 총무단 지도하에 각 교단 대표(예성: 송용현 목사, 기성: 송재홍 목사, 나성: 한만기 목사)와 실무자들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넷째, 비전선언문은 성결대, 서울신대, 나사렛대에서 6명의 신학자들(위원장 서울신대 박명수 교수)이 작성한 내용을 검토한 후 신년하례식 때 선포하여 사용하기로 했다. 다섯째, 한성연 사회복지 비전컨퍼런스는 2016년 12월 12일(월) 오후 1시부터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 이원국제회의실에서 갖기로 하고, 순서는 각 교단 총회장과 총무, 복지분과 위원들과 교수들이 맡기로 했다.

CTS, 예상대신 2016 대한민국 성탄 축제 개최

26일 성탄트리 점등식 전 세계 생중계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와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총회장 이종승 목사)는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2016 대한민국 성탄축제를 오는 11월 26일(토) 오후 5시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하고, 대형 성탄트리 점등식을 갖는다고 7일 밝혔다.

매년 서울시청 앞 광장을 밝게 비추는 2016 대한민국 성탄축제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기쁨을 함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나눔과 봉사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연말연시를 위해 마련되었다.



CTS를 통해 26일 오후 5시부터 60분간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 되는 이번 2016 대한민국 성탄축제는 양병희 목사(한국교회연합 명예회장)가 성탄메시지를 전하고, CTS공동대표이사 전운재, 채영남, 박무용 목사, 예상대신 이종승 총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마크 리프트 주한미대사 등 정관계 인사 등 교계 및 정계 인사가 점등인사로 참석해 성탄트리에 불을 밝혔다.

이아진은 축하무대는 예상대신 소속 10개 교회에서 100명씩 참가한 1,000명의 연합 성가대가 기본 성탄을 축하하는 합창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하는 CTS 감경철 회장은 “대한민국 성탄축제를 통해 성탄의 참 기쁨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낮은 곳으로 인하신 예수님을 닮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따뜻한 나눔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크리스천리더스아카데미, 밥퍼사역

서울역 노숙자형제와 헌신예배로 드러

각 분야 크리스천 리더로 구성된 크리스천리더스아카데미(CLA(위원장 정현일 목사)가 CLA총동문화회(회장 오수필 장로)와 함께 지난 11월 2일(수) 오전 11시 서울역 신생교회(담임 김원일 목사) 노숙자형제 500여 명에게 사랑과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노숙자 밥퍼사역을 실시했다.



이날 크리스천리더스아카데미 10기 회원들은 총동문화회 원우들과 함께 노숙자형제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안으로서 따뜻한 점심식사를 정성껏 대접했다.

이날 밥퍼사역 전에 “서울역 노숙자형제와 함께 드리는 CLA10기 헌신예배”도 드렸다. 조인석 전도사의 사회로 시작된 헌신예배에서 정현일 목사(생명나무교회)는 마 11:28 말씀을 본문으로 “내게로 오라”라는 제의의 설교에서 “우리 죄짐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

님이 바라보며 우리의 피난처이며 반석이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고 강조하며 “예수님이면 충분히 예수님에게 돌아가지”고 전했다. 대표기도는 유경모 집사, 봉헌기도 조현주 집사, 특주예 신영진 안수집사 등 CLA10

제1회 다문화부부초청 오리엔테이션

세기총, 다문화가족 위로 및 질적 삶 향상시켜주고자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시영 목사)는 지난 11월 8일(토)부터 10일(목)까지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개최한 ‘제1회 다문화가족 부부초청 부부교실’에 앞서 11월 1일(화) 오후 6시 서초동 예술의전당 앞 백련사에서 50여명의 다문화 가족과 행사진행자들이 모인 가운데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세기총 대표회장(고시영 목사)과 문화위원회(정서영 목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을 위로하고 한국생활의 질적 삶을 향상시켜 주고자, 2015년도 제1회 다문화가족 초청행사를 시작으로, 지난 2016년 5월 2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및 용인시 일원에서 제1회 행사를 진행하였음을 피력하고, 세기총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다문화가족 부부를 대상으로 한 부부교실을 계획하기에 이르렀으며 다문화가족의 부부간 성경

등과 인연에 있어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사업을 위해 본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전했다.

부하면서 저녁식사를 나누며 다문화가족들의 문의 사항을 듣기도 하였다.

이울러 진행위원장(박광철 목사)은 오늘 오리엔테이션이 있기까지 시간이 촉박하였지만 협조하여 준 다문화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SNS(문자 및 카톡)를 잘 이용하여 주기를 당

오리엔테이션 후 참석하신 가족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고 따뜻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로 이동하여 오후 8시부터 겨레사랑 2016 한국기독교 패스티벌을 관람하면서 모임을 마무리하였다.

후원감사의 밤 ‘패밀리데이’ 개최

월드비전 후원자·자원봉사자·홍보대사들 참여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은 지난 11월 4일(금),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홍보대사들을 초청하여 다같이 나눔의 기쁨을 공유하고 후원자로서 유대를 다지는 후원감사의 밤 ‘2016 월드비전 패밀리데이’를 개최했다.



올해는 베트남 호야방 사업장과 방글라데시 섰터 사업장의 자립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 마을이 자립했어요’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아동을 후원했던 후원자들을 포함하여 월드비전을 통해 해외 아동을 후원하고 있는 후원자 400여 명이 참여했다.

후원자뿐 아니라, 자원봉사자, 또 월드비전과 나눔에 동참하고 있는 친선·홍보대사들이 제는 나눔으로 참여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월드비전을 통해 28(명의) 아동

(더 히든)이 제는 나눔으로 출연하여 멋진 축하공연을 선보였다.

특히, 15년 간의 사업을 마치고 ‘자립’한 방글라데시 섰터 사업장에서 성장한 아동 무수미 보스(25)를 한국으로 초청, 1998년부터 15년간 후원했던 후원자와 깜짝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